



국가별동향

EU

세계 농산물시장 전망 공표

유럽위원회는 5월 하순 2007년판 금후의 세계 농산물시장의 전망을 공표했다. 약 1년 반 사이에 농산물가격의 전망이 크게 변화하게 된 요인으로 먼저 공급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발의 영향을 들고 있다. 특히 최근의 호주의 한발은 곡물생산 및 수출량 감소와 동시에 유제품 가격 폭등을 초래한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예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요인으로 공전의 바이오연료 이용 확대에 의한 농산물 수요 증가를 들고 있다. 전번 전망에서는 아직 미국에서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붐을 시작으로 하는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 베이스나 그 영향 비중이 예상되지 않았었다. 그 영향은 곡물이나 유량작물을 이용하는 축산물 생산 코스트 상승요인이 되는 등 잠재적 큰 요인이 되었다.

생산은 사료이용이나 공업이용의 증대를 배경으로 연 1.2~1.4%의 비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재고수준은 옥수수의 경우 현재 소비량의 12%의 낮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은 과거 10년에 비해 금후 10년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곡물의 고수준 가격이 이어질 경우의 문제점으로 바이오 연료 이용 확대가 고가격의 요인의 하나인데다 작부 확대나 신기술 개발로 '에탄올 버블'로 옥수수 생산자의 경영 등에 영향이 나올 위험성이 있다고 전했다.(AW)

일본

블로일러 사육농가는 감소하고 사육수수는 증가

일본 농림수산성이 5월 18일, 금년 2월 1일 현재의 식조유통통계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블로일러사육호수는 2,583호로 전년에 비해 0.3%(7호) 감소했다. 사육수수는 1억528만1천수로 동 1.1%(112만3천수) 증가했으며 1호당 사육수수는 4만800수로 동 1.5%(600수)증가했다.

현별 사육수수는 가고시마, 미야자키, 이와테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3현의 사육수수는 전체의 49.0%에 해당한다.(KM)

인도

계란 수출 30% 증가

지난해 8월 인도정부가 HPAI가 발병한 이후로 AI가 종식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수입 금지조치를 철회했다. National Egg Coordination Committee's (NECC)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는 190~200컨테이너를 아프리카, 아프카니스탄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16개월이 지나서야 아랍에미리트가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최근 이전보다 30% 상승한 260컨테이너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 당국은 수요에 대비해 지난 2월에 입식한 계군이 생산에 가담하면서 공급량 대비 난가 상승의 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www.thepoultrysite.com)

WHO

AI대책, 도상국을 배려하기로 WHO총회 결의 채택

WHO총회는 23일 AI나 신형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대비해 도상국 권리를 배려하면서 백신의 제조, 비축을 진행한다는 결의를 전회 일치로 채택했다. AI의 바이러스 검체에 대해서는 도상국이 WHO에 제공한 검체를 이용, 선진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고가의 백신을 도상국이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인도네시아가 검체 제공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중국도 검체 제공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WHO는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정비

하지 않으면 대 유행에 대응할 수 없다며 관계국과 협의해 왔는데 이번에 도상국에의 배려를 강하게 도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AS)

싱가포르/인도네시아

AI대책 국제 협력, 3년간 450만 달러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양국 보건담당 장관은 5월 19일 인도네시아의 반덴주 탕계랑 행정지역에서 금후 3년간에 걸친 AI대책 프로젝트를 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AI대책 확충으로 사람에의 AI 감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금은 총액 450만 달러로 인도네시아도 국고에서 그 반액인 225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의 연구소 전문가의 육성 외에 총액 150만 달러 상당의 제공을 신청하고 60만 달러를 기차재 구입에 충당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90만 달러분에 대해서는 특히 용도를 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필요한 자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원조로 채우기로 했다.

450만 달러의 예산 내역은 AI에의 방역대책에 26%, 감시에 22%, 발생에의 대응에 21%, 진단, 홍보, 예비비로 각각 9%로 하고 나머지 4%를 운영비로 했다. 이 국제협력사업 실시는 2005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APEC회의의 수뇌선언에서 각국은 AI대책에서 협력하는 요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의 프로젝트에는 FAO나 WHO 등도 관여함과 동시에 APEC의 멤버국인 미국도 참가하고 있으나 그 역할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AW)